4부 성경의 속성

성경론 15편 무오성 · '틀림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프레임 26장 성경의 무오성 · 프레임 27장 성경의 현상 · 워필드 6장 성경 영감에 관한 실제 문제('교리의 분명함' · '교리 수정과 권위 약화' · '방대한 증거'와 '강한 추정', 참고로 '현상으로 교리 고치기') · 신앙고백서 1.8 (1.4 함께) · 신앙고백서 1장 1.8

> ❓ **성경이 과학책도 아닌데 '무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안 틀렸다는 거야?**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무오'라는 말의 뜻을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프레임은 무오(오류가 없음)와 불오(오류가 생길 수 없음)를 나누고, 그 뿌리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둡니다. 신앙고백서 1.4의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워필드와 신앙고백서 1.8은 이것이 머릿속 추론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실제로 가르친 교리이고, 기록된 단어까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편의 중심 답이 나옵니다. 무오는 '최고 수준의 정밀함'이 아니라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입니다. 그래서 어림수, 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 장르, 느슨한 인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다음 '구원 문제만 무오'라는 절충은 경계선을 그을 수 없고 결국 성경 전체의 권위를 깎는다는 점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남는 난제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연구하되, 확실한 증명 전까지는 '오류'가 아니라 '난제'로 두는 겸손으로 마무리합니다.

📜 절별 정리

📜 1. 먼저 뜻부터: 무오와 불오 (프레임 26장 1–2절)

'무오성'은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라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오론'은 성경이 구원 문제에서만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사전을 펼쳐 '오류나 거짓이 없음'이라는 단순한 정의를 택합니다. 다만 사전이 덧붙인 '문자적'이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지 성경이 참되다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오'에는 '~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 불오가 무오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로저스와 맥킴은 불오를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약한 뜻으로 쓰자고 했는데, 프레임은 이것을 단어를 무책임하게 쓰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1. 무오성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 정의가 먼저
2. 오르의 정의: 세부까지 문자 그대로 정밀함
3. 프레임이 택한 정의: 오류나 거짓이 없음
4. 불오: 오류가 '있을 수 없음', 더 센 말
5. 성경은 무오하고 또한 불오하다

> **(없음)**
> 용어를 정의하는 단락이라 프레임이 구절을 달지 않음. 근거는 다음 절의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옴

“성경은 불오하기 때문에 무오하다.” — 프레임

📜 2. 왜 틀릴 수 없나: 거짓말도, 모르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 (프레임 26장 3절 · 신앙고백서 1.4)

오류는 두 곳에서 생깁니다. 일부러 속이는 기만, 그리고 몰라서 틀리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프레임은 사상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서 “틀리셨습니다” 라고 따지는 모습은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1.4도 같은 축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곧바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치면 이겨야 할 쪽은 하나님입니다(로마서 3:4).

1. 오류의 두 뿌리: 기만과 무지
2.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다 아신다
3. 그러니 그분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
4. 1.4: 권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저자에게
5. 내 생각과 부딪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 **민수기 23:19**
>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기만의 가능성을 없앰
>
>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 **디도서 1:2**
>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기만을 부정함
>
>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 **히브리서 6:18**
>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불오('할 수 없음')의 근거
>
>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시편 33:13-15**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굽어보신다: 무지의 가능성을 없앰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히브리서 4:12-13

그분 앞에 숨겨진 피조물이 없다: 하나님의 전지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은 진리: 성경의 직접 진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로마서 3:4 (시편 51:4 인용)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충돌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

로마서 3: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신앙고백서 1.4 근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

📜 3. "논리로 끌어낸 결론일 뿐"? —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가르친다 (워필드 6장 '교리의 분명함' · 신앙고백서 1.8 · 프레임 26장 3·7절)

“무오성은 성경의 분명한 진술이 아니라 논리로 끌어낸 결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추론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학에서 추론은 정당하고(신앙고백서 1.6의 '필연적 결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직접 말한다고 답합니다. 워필드는 이 자리를 크게 채웁니다. 신약 저자들이 높은 영감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 교리를 믿지 않는 비평가들조차 인정하는 해석상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사람 저자의 이름 대신 “성경이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화자가 아닌 구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인용하고, 단수형 '씨'라는 단어 하나에 논증을 겁니다. 그러니 이 교리는 몇 개의 떨어진 구절에 기댄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의 성경관 전체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신앙고백서 1.8은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고 고백하고, 프레임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록된 말씀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입으로 전한 말씀만큼 무오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만큼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1. 추론도 정당하고, 성경이 직접 말한다
2. 비평가들도 인정: 사도들의 높은 성경관
3. “성경이 이르되” = “하나님이 이르시되”
4. 단어 하나(단수 '씨')에 논증을 건다

디모데후서 3:16

★여러 책 공통(워필드·신앙고백서 1.2, 1.4): 사람만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9:17 · 갈라디아서 3:8

“성경이 이르되”: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룸(워필드)

로마서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7

구약 인용을 “성령이 이르신 바”로 소개함(워필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도행전 28:25

★여러 책 공통(워필드·신앙고백서 1.10):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히브리서 1:6-8

하나님이 3인칭으로 언급되는 구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로 인용함(워필드)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로마서 15:4

★여러 책 공통(워필드·신앙고백서 1.1, 1.8):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의도되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16

★여러 책 공통(프레임·워필드): 구약의 글자 하나(단수 '씨')에 논증을 세움. 워필드는 문자까지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프레임은 단어 하나가 중요한 예외적 경우로 듦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5:18

★여러 책 공통(신앙고백서 1.8 근거·워필드 같은 장):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

📜 4. 진리와 정밀함은 같은 말이 아니다 (프레임 26장 4–5절)

성경에서 '진리'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궁극적 실재, 사실을 바르게 말하는 명제적 진리, 빛 가운데 행하는 윤리적 진리입니다. 무오성이 다루는 것은

왔기 때문에 '무오성'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정밀함'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밀함은 문맥이 정합니다. 수학 시간에 “6+5=10”은 오류입니다. 그러나 398쪽짜리 책을 “400쪽”이라고 한 교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의 크기를 더 바르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의 말로 쓰였고, 현대 과학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필요한 만큼, 자기 목적에 충분한 만큼 정확합니다. 일부 독자가 요구하는 만큼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무오가 다루는 건 '명제적 진리'
2. 진리 ≠ 최고 수준의 정밀함
3. 필요한 정밀함은 문맥이 정한다
4. 성경은 과학 문서가 아니라 일상의 말
5. 성경은 자기 목적에 충분히 정확하다

> **요한복음 17:3**
>
> '유일하신 참 하나님': 궁극적 실재로서의 진리
>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신명기 17:4**
>
> 고발이 '사실'로 드러남: 명제적 진리
>
>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 **열왕기상 10:6**
>
> 스바 여왕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명제적 진리
>
>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 **요한일서 1:6**

>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복음 14:6

“내가 곧 진리요”: 일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명제적 의미를 지우는 데 써 왔다는 예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오성은 성경이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진 않는다.” — 프레임

📜 5. 이 편의 답: 무오 =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 (프레임 26장 6절)

사실을 진술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장'합니다. “나는 스물네 살이다”는 정확히 스물네 해를 살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마지막 생일에 스물네 살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교실에서 말한 “400쪽”은 믿을 만한 추정치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출판사 직원이 사장에게 같은 숫자를 보고했다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주장은 대개 관습에 기대어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매번 비유라고 밝히지 않으셨지만 청중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알 만큼 그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은 무오한 말을 '그 말이 주장하는 바에 충실한 말'로 다시 정의합니다.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 틀리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 전부입니다.

1. 사실을 말하는 문장은 무언가를 '주장'한다
2. 같은 말도 상황 따라 주장이 다르다
3. 주장은 대개 관습에 기대어 암묵적이다

(특정 구절 없음)

예수님의 비유 일반: 비유라고 밝히지 않아도 청중이 장르를 알아들음

📜 6.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적용이다: 어림수·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장르·인용 (프레임 26장 7절)

많은 신학자가 '무오성의 자격 요건' 목록을 만듭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법, 연대순이 아닌 서술, 어림수, 느슨한 인용, “해가 떴다” 같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 대략적인 표현 같은 것들입니다. 프레임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이것들을 '예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주장할 뿐 정밀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무오성의 기본 뜻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문학적 헬라어가 아니라 서민의 코이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칼빈의 표현대로 유모가 아기에게 말하듯 우리 수준에 맞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가 쉬운 말을 써도 거짓말은 하지 않듯, 맞춰 주신다고 해서 오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은 현대적 학문 역사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분명히 주장하는 곳은 드뭅니다. 인용부호가 없던 시대에는 요지만 전하는 인용도 자연스러웠습니다.

1. '예외'가 아니라 기본 뜻을 적용한 것
2. “해가 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
3. 쉬운 말로 맞춰 주심 ≠ 거짓말
4. 순서·글자 그대로의 인용은 대개 주장 안 함
5. 단어 하나가 중요한 곳도 드물게 있다

마가복음 1:5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옴: 대략적 묘사는 오류가 아님

>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태복음 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라디아서 3:16

★여러 책 공통(프레임·워필드, 3절 참조): 이 경우는 단수형 단어 하나가 중요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16이 근거로 삼는 '네 씨' 약속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7. "구원 얘기만 안 틀리면 되지 않아?" — 선을 그을 수 없다 (프레임 27장 1절 · 워필드 6장 '교리 수정과 권위 약화')

"성경은 구원을 알려 주는 책이니 역사나 과학에는 오류가 있어도 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여러 이유로 답합니다. 성경 자신은 '거룩한 문제'와 '세상 문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섭리는 세상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구원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이며,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주로 다루는 주제를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 안에 가둘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워필드는 이런 '조금 고치기'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영감 교리의 핵심을 고치면 사도들이 교사로서 지닌 권위가 반드시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권위가 약해진 빈자리는 이성, 감정, 개인의 신앙 의식, 교회 같은 다른 권위가 채웁니다. 그러면 평범한 신자는 학자와 교회의 판단에 더 기대게 되고,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개신교의 확신(명료성)을 잃게 됩니다.

1. 성경은 거룩/세속을 나누지 않는다

3. 구원은 실제 역사 속 사건이다

4. 핵심을 조금 고치면 권위 전체가 약해진다

5. 빈자리는 이성·감정·교회가 차지한다

> **(27장 1절 직접 인용 없음)**
> 프레임은 이 절의 성경 근거를 24·25·31장으로 미룸

> **민수기 23:19 · 히브리서 6:18**
> 프레임이 26장에서 제한적 무오론에 답하며 다시 드는 구절: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
> **민수기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
> **히브리서 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 8. 틀린 것처럼 보이는 곳: 현상에서 출발하면 왜 안 되나 (프레임 27장 2-5절 · 워필드 6장 '현상으로 교리 고치기')

'성경의 현상'은 실제로 읽을 때 눈에 보이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보다 이 현상에서 성경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귀납적 접근). 그러면 무오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난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난제는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같은 모든 교리에 있고, 그렇다고 그 교리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도 판단을 보류하지 않고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현상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고, 믿음 안에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워필드도 귀납 자체는 환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성경 자신의

1. 현상 = 읽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
2. 난제는 모든 교리에 있다
3. 아브라함은 판단을 보류하지 않았다
4. 현상 무시 = 말씀 무시, 끝까지 연구
5. 첫째 현상은 성경의 자기 주장(워필드)

로마서 4:19-21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본보기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22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짐: 하나님이 이 태도를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시편 1:2

말씀을 묵상하라: 본문의 세부(현상)도 연구 대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명기 8:3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4

★여러 책 공통(프레임·신앙고백서 1.1): 예수께서 신명기 8:3을 인용하심. “기록되었으되”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5:7

프레임이 장절 없이 빌려 쓴 표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음

>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디모데후서 3:16

★(워필드) '영감'의 뜻은 내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의도한 뜻에서 찾아야 함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9. 그래도 남는 난제: 무거운 증거, 강한 추정, 정직한 "모르겠다" (워필드 6장 '방대한 증거' · 프레임 27장 6-7절)

워필드는 영감 교리를 받치는 증거의 무게가 성경 저자들이 믿을 만한 교사라는 증거 전체의 무게와 같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나 부활을 받치는 증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영감이 기독교의 토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추정'을 갖고 현상을 연구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확실한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오류가 아니라 '난제'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에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증은 피하지 말고 더 철저히 하되, 억지 조화는 금물입니다. 실제로 누가의 '총독' 칭호나 루사니아처럼 한때 오류로 조롱받던 것들이 발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프레임은 난제의 원인을 둘로 짚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유한성(낯선 고대 문화와 문학 관습)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억누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비평 학계의 오만에 오만으로 맞서지 말고, 모르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1. 증거 무게 = 사도 신뢰성 증거 전체
2. 영감은 기독교의 토대는 아니다

4. 억지 조화 금지, 못 풀면 그대로 둔다

5. 난제의 원인: 우리의 유한성과 죄

사도행전 13:7

구브로의 '총독' 칭호: 오류라 했다가 발견으로 입증된 사례(워필드는 장절 없이 사례만 듦)

>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3:1

분봉왕 루사니아: 조롱받다가 확인된 누가의 정확성(워필드는 장절 없이 사례만 듦)

>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고린도전서 2:13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함: 사도의 가르침에 성령의 승인이 있다(워필드)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로마서 1:18, 1:25

죄인이 진리를 막고 거짓과 바꾼다: 난제의 둘째 원인인 죄(프레임)

>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로마서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가복음 24:25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마음: 문제는 증거보다 마음에 있다(프레임)

>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고린도후서 3:14

구약을 읽을 때 마음에 덮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프레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만일 우리가 억지로 조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 조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도록 하자." — 워필드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론』	무오는 '최고 수준의 정밀함'이 아니라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이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무오·불오 구분, 진리 ≠ 정밀함, 하나님의 성품, 난제 앞의 겸손	성경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성령의 내적 증거), 원본과 사본 문제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예수님과 사도들이 단어까지 영감된 무오한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은 믿을 만한 교사다. 겉보기 모순은 증명 전까지 난제다.	성경의 자기 증언, 교리를 조금 고치면 권위 전체가 약해짐, 증거의 무게와 강한 추정	무엇이 '오류'인가의 언어적 정의(어림수·장르 등) — 프레임이 메운다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이 편 재료에 없음) — 프레임이 '일상 언어 말씀'으로	(이 편 해당 없음)	이 편 전체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고(1.8), 권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저자 하나님께 있다(1.4).	무오의 뿌리인 저자 하나님, '직접 영감'	'무오'(inerrancy)라는 낱말도, 오류의 정의도 없음(1.5는 '틀림없는 infallible 진리'라고만 함) — 프레임·워필드가 메운다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 재료에 없음) — 무오의 근거는 프레임과 신앙고백서 1.4가 메운다	(이 편 해당 없음, 자증성 편에서 다룸)	이 편 전체

- 세 목소리의 역할이 나뉩니다. 신앙고백서는 뿌리를 짧게 못 박습니다(진리 그 자체이신 저자, 직접 영감). 워필드는 그 고백이 성경 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증거를 댑니다. 프레임은 '무엇이 오류인가'를 언어로 정의합니다.
- 난제 앞에서 출발점은 다릅니다. 워필드는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개연성 논증으로, 프레임은 '말씀이 척도'라는 전제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증명 전엔 오류가 아니고, 억지 조화를 하지 않으며, 모르는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합니다.
- '맞춰 주심(적응)'에 대해 프레임과 워필드는 같은 선을 긋습니다.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추는 것은 쉬운 말로 진리를 전하는 일이지 오류를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 신앙고백서와 워필드가 비운 '오류의 정의'는 프레임이 메웁니다. 프레임이 비운 '확신의 출처'는 신앙고백서 1.5와 오웬이 다른 편에서 메웁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축자 영감
성령의 감독이 저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가 고른 단어에까지 미쳤다는 교리로, 받아쓰기를 뜻하지 않는다.

무오성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오류나 거짓이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성질로, 무오성보다 더 강한 말.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한 원본 문서로, 오늘 우리에게는 사본으로만 전해진다.

제한적 무오론
성경이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만 오류가 없고 역사나 과학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

명제적 진리
“책이 탁자 위에 있다”처럼 사실을 확언하는 말이 실제와 맞는 것.

현상적 묘사
“해가 떴다”처럼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표현.

적응(맞춰 주심)
하나님이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 우리 이해력에 맞춘 쉬운 말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난제
성경 안에서 틀리거나 어긋나 보이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증명된 오류와는 다르다.

✅ 이 편의 결론

- 무오는 '오류가 없음', 불오는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이다. 성경은 불오하기에 무오하다.
-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신앙고백서 1.4), 예수님과 사도들이 실제로 가르친 교리다. 기록된 단어까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신앙고백서 1.8).
- 무오는 최고 수준의 정밀함이 아니라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이다. 어림수, 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 장르, 느슨한 인용은 오류가 아니다.
- '구원만 무오'라는 절충은 경계선을 그을 수 없고, 성경 전체의 권위를 다른 권위에 넘겨준다.
- 남는 난제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연구하되, 증명 전까지는 오류가 아니라 난제로 두고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성경의 무오성
- 프레임 · 성경의 현상
- 워필드 · 제6장 성경 영감에 관한 실제 문제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